

제 13 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공동선언문

1. 제 13 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개요

1.1. 제 13 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은 2020 년 11 월 5 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. 본 포럼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오가사와라 요이치 대신관방심의관, 중화인민공화국 문화관광부 마평 산업발전사부사장,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 및 3국의 관계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이 주최국으로서 의장을 맡았다.

1.2. 3 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각국의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이후 3 국의 콘텐츠 진흥 및 활용 시책, 각국의 문화 콘텐츠 관련 국제박람회를 통한 교류 및 기업 간 국제 연계 시책에 대하여 논의했다. 3 국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계 하에, 본 포럼을 통해 이러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, 3 국 콘텐츠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

1.3. 3 국은 본 포럼이 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계를 아우르는 콘텐츠 산업 정책·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교환의 장 및 3 국 산업계 간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재인식했다. 3 국은 향후에도 본 포럼을 교대로 지속 개최하는 것에 동의했다.
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이후의 시대에서 3 국 콘텐츠의 상호 유통을 위한 콘텐츠 진흥 및 활용

2.1. 3 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이후의 시대에서 나타난 새로운 생활 양식 속 새로운 소통 및 여가 향유의 도구로써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콘텐츠의 역할을 인식하고, 3국에서 개최되는 문화 콘텐츠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지향한다.

2.2. 3 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이후의 시대에서 콘텐츠의 역할을

모색함과 동시에, 콘텐츠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. 또한, 3 국은 이러한 대응책을 서로 공유하며 각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.

2.3. 3 국은 각국의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, 각국 콘텐츠 산업에서의 기존 규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. 또한, 3 국은 콘텐츠 산업에서 관계 기관들 간 연계를 통한 공동 제작 등의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해 서로 긴밀히 연락을 취한다.

3. 3 국 콘텐츠 산업계의 국제 연계에 대한 지원 추진

3.1. 3 국은 사업자 간 연계, 전시, 전문가 회의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관련 행사와 연계하는 형태로 본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3 국의 기업 간 국제 연계를 강화한다.

3.2. 3 국은 콘텐츠 기업들 간의 교류망 확대 및 국제 공동 제작 등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서 개최되는 문화 콘텐츠 관련 국제박람회 등에 대하여 산업계의 참가를 촉구한다.

3.3. 3 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이후의 시대에도 전산망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관련 온라인 국제박람회 등을 통해 3 국 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.

4. 차회 포럼에 대하여

4.1. 3 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최국으로서 차기 포럼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. 한국과 일본은 관련 정부 기관 및 산업계가 포럼에 참여하도록 협력하고, 중국이 포럼을 개최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지원한다.

4.2. 3 국은 2021 년에 제 14 회 포럼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.

본 공동선언문은 2020 년 11 월 5 일, 제 13 회 포럼에서 한국어, 중국어, 일본어, 영어로 채택되었으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을 우선한다.